

신라 하대 軍制의 변화와 그 붕괴

김 종 수*

1. 머리말
2. 신라 上·中代 軍制의 개편
3. 신라 下代 軍制의 변화와 鑲의 설립
4. 신라 말 軍制의 붕괴와 후삼국의 성립
5. 맺음말

1. 머리말

군대는 국가의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군사력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모든 부문의 역량의 총합이다. ‘富國強兵’한 나라가 발전하고, ‘貧國弱兵’한 나라가 쇠망하는 것은 역사의 철칙이다. 따라서 군대의 군사력을 조직·관리하는 군제는 국가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며, 군제의 성격과 그 변천을 연구하는 군제사 연구는 역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속한다. 이러한 군제사 연구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신라 군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일찍이 소수의 실학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자들이 이에 대해 선구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고, 근대적인 역사연구법이 정립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논점과 문제의식도 점차 심화·확대되어 왔다.¹⁾

신라 역사에서 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 따라 신라사에 관한 논문들에서 군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단지 지금까지 신라 군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들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주로 개별적인 군사조직이나, 일정한 시기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 6停²⁾, 9誓幢³⁾, 10停⁴⁾, 侍衛府⁵⁾, 法幢⁶⁾, 鎭⁷⁾ 등의 군사조직이나, 상고기⁸⁾, 중고기⁹⁾, 중대¹⁰⁾, 하대¹¹⁾ 등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

-
- 1) 신라시기 군사조직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李文基, 『新羅 軍事組織 研究의 成果와 課題』, 『歷史教育論集』 12, 1988 참조.
 - 2) 李成市, 『新羅六停의 再檢討』, 『朝鮮學報』 92, 1979.
李文基, 『新羅 6停軍團의 運用』, 『大丘史學』 29, 1986.
朱甫墩,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文化』 3·4合, 1987.
 - 3) 盧重國, 『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韓國史論』 41·42合, 1999.
 - 4) 韓준수, 『신라 신문왕대 10停의 설치와 체제정비』, 『韓國古代史研究』 38, 2005.
 - 5) 李文基, 『신라 侍衛府의 성립과 성격』, 『歷史教育論集』 9, 1986.
 - 6) 李仁哲, 『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 『韓國史研究』 61·62合, 1988.
 - 7) 李基東, 『新羅 下代의 涇江鎭』, 『韓國學報』 5, 1976(『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재수록)
李文基, 『統一新羅期의 「北鎭」과 軍事的 位相』, 『九谷 黃鍾東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1994.
姜鳳龍, 『新羅下代 涇江鎭의 設置와 運營』, 『韓國古代史研究』 11, 1997.
全德在, 『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軍史』 35, 1997.
 - 8) 李文基, 『新羅의 六部兵과 그 性格』, 『歷史教育論集』 27, 2001.
李仁哲,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강좌 한국고대사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3.
金鍾洙, 『新羅 上古期 軍制의 성립과 개편』, 『軍史』 73, 2009.
 - 9) 武田幸男, 『中古新羅의 軍事的 基盤』, 『民族文化論叢』 1, 1981.
강봉룡,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 4, 1990.
盧瑾錫, 『新羅 中古期의 軍事組織과 指揮體制』, 『韓國古代史研究』 5, 1992.
李文基,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 10) 李明植, 『新羅 統一期의 軍事組織』, 『韓國古代史研究』 1, 1988.
李文基,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研究』 16, 서경문화사, 1999.
金鍾洙,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研究』 126, 2004.
 - 11) 李仁哲, 『新羅 支配體制의 崩壞와 軍官組織』,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었다. 이것은 신라 군제에 대한 논점과 문제의식이 심화·확대됨에 따라 나타난 필연적인 경향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별적인 군사조직이나, 일정한 시기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신라 시기 전체에 걸쳐 진행된 군제의 변화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부분을 통해서도 전체를 가늠할 수 있지만,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부분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천년의 역사 동안 진행된 군제의 변화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라 하대 군제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편이었다. 신라 하대 군제는 上代(상고기·중고기), 中代 군제의 제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신라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 신라 하대 군제는 후삼국과 고려초기 군제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고려 초기 군제는 신라 하대 군제의 기반 위에서, 이것을 개혁해 가는 가운데 그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신라 군제 전체와 고려 초기 군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 하대 군제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대 군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불충분한 편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라 하대 군제의 변화와 그 붕괴 과정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려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의 군제사 이해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해두고자 한다. 우선 한 시기의 군제에는 다양한 군대가 혼합되어 있다. 신라 중대의 군제를 예로 들면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구분 하에서 6정, 9서당, 10정, 법당, 진 등 다양한 군대가 혼합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군사력과 부차적인 군사력을 구분하고, 중추적 군사력의 변화를 알아야 군제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추적 군사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라 군제의 변천을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군대는 삼국 이래 무관과 의무군역에 동원된 농민병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농민병을 중심으로 군제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농민병은 무관에 비해 그리 큰 군사적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孔子도 “善人이 7년 동안 民을 훈련시켜야 (그들을) 전쟁에 내보낼 수 있다.”¹²⁾라고 말할 정도이다. 뛰어난 지휘관(善人)이 7년 동안 훈련시켜야 겨우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민들의 군사적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다. 실제 민애왕 2년(889) 주로 농민병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의 10만 대군은 장보고의 수천 군대에 격파되어 왕이 피살된 바 있다. 농민병은 전문적인 군인에 비해 군사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대에서 실질적인 군사력을 지닌 무관이나 전문적인 군인을 중심으로 신라 군제의 변천을 살펴보려 한다.

2. 신라 上·中代 軍制의 개편

신라 천년의 역사 동안 군제는 대략 5번에 걸쳐 크게 변화하였다. 사료국 건국 이후 지증마립간 대까지에 해당하는 上古期の 군제는 6部兵制과 2部兵制로 운영되었는데, 건국 이후 실성이사금 때까지인 이사금 시기에는 6부병제로 운영되었고, 눌지마립간 이후 지증마립간 때까지인 마립간 시기에는 2부병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법흥왕 이후부터 진덕여왕 때까지인 中古期の 군제는 大幢과 停制로 운영되었다. 한편 中代 이후 신라의 군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평시체제는 줄곧 중앙군과 지방군 체제로 운영된 반면, 中代의 전시체제는 6停과 9誓幢 체제로 운영되었고, 下代의 전시체제는 3軍制로 운영되었다. 즉 신라 군제는 6부병제(이사금 시기)→2부병제(마립간 시기)→대당과 정제(중고기)→6정과 9서당 체제(중대)→3군제(하대) 등 총 5번의 큰 변화를 겪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신라 上代(上古·中古)와 中代에 전개된 군제의 개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신라는 기원 전후에 철제 농기구의 확산 등으로 촉발된 사회 변동에 대

12) 『論語』, 子路, ‘子曰 善人教民七年 亦可以即戎矣’

처하기 위해 진한 지역의 6개 읍락이 연합하여 건국되었다. 이와 같이 6개의 읍락이 모여 신라를 건국하였기 때문에 신라초기의 군대는 6개 읍락의 민들로 구성되었다. 6개의 읍락은 梁部(喙部), 沙梁部(沙喙部), 漸梁部, 本彼部, 漢祗部, 翳比部 등 6부를 형성하고, 각 부민 가운데 유력자를 군인으로 뽑아서 6부병을 만들었던 것이다. 사료 신빙성 문제로 논란은 있지만 남해차차웅 11년(14)에 낙랑의 군대를 몰아내는데 6부병 1,000명이 동원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¹³⁾ 신라는 건국 무렵부터 6부병을 형성하였는데 그 수는 대략 1,000명 정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6부가 모여 신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6부병은 부단위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병력이 아니라 신라국왕의 명령에 따라 동원되는 신라의 國軍이었다.¹⁴⁾ 신라는 이러한 단결된 군사력으로 건국 이후 진한 소국들을 차례차례 정복하여 3세기 말에는 진한을 완전히 통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6부병은 각 부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고 이들 부의 영향력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6부병이 비록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병력이라고 하더라도 국왕이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5세기 초 눌지마립간 대에 오면 6부병은 2부병으로 개편된다.

눌지마립간은 실성이사금이 국인(6부병)에 의해 추대된 것¹⁵⁾과는 달리 실성이사금을 시해하고 自立하여 왕이 되었다.¹⁶⁾ 눌지마립간은 자신의 추종 세력과 당시 신라에 주둔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도움으로 실성이사금 16년(417) 5월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올랐는데,¹⁷⁾ 이것은 신라 정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6부병이 추대한 실성이사금을 무력으로 제거한 쿠데타에 대해 6부병들의 동요와 반발도 상당했을 것이다. 이에 눌지마립간과 추종 세력은 고구려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6부병의 반발

13) 『三國史記』 1, 新羅本紀 1, 南解次次雄 11년

14) 李仁哲, 「고대국가의 군사조직과 그 운영」, 앞의 책, 2003, p.309.

15)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實聖尼師今 즉위년. '奈勿農 其子幼少 國人立實聖 繼位'. 국인이 6부병이라는 것은 拙稿, 앞의 논문, 2009, pp.20~21 참조

16) 『三國史記』 3, 新羅本紀 3, 訥祗麻立干 元年. '乃歸 訥祗怨之 反弑王自立'

17) 『三國遺事』 1, 紀異 2, 第十八 實聖王

을 억누르고 김씨 왕족의 독점적 정치체제를 구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일환으로 놀지마립간은 6부병을 喙部(梁部)와 沙喙部(沙梁部)로 강제 이주시켜 2부병으로 편제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종전처럼 6부병이 각 부에 분산·거주하고 있으면 통제와 감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연과 혈연으로 묶여있던 6부병을 지연과 혈연에서 분리된 명실 상부한 국군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후 놀지마립간은 외국에 인질로 나가있던 자신의 동생들을 불러들여 갈문왕으로 삼아, 喙부의 병사들은 마립간이, 사훼부의 병사들은 갈문왕이 통솔하는 이원적 군사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마립간은 喙부를 관장하면서 신라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의 유력자는 사훼부를 맡으면서 갈문왕으로서 마립간의 뒤를 받치는, 권력의 집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것이다.¹⁹⁾

마립간 시기의 2부병제는 비상조치로 만들어진 군제였다. 놀지마립간과 그 추종세력이 김씨 왕족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6부병제를 2부병제로 개편한 것이다. 그러나 마립간과 갈문왕이 각각 중앙군을 분담하는 이원적 군사체제는 김씨 왕족의 배타적 무력 독점 체제를 수립하였으나 김씨 왕족 내에 갈등을 조성할 우려가 있었다. 마립간과 갈문왕이 대립할 때에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2부병제는 중고기에 들어와 일원적 지휘체제로 개편된다. 이것은 법흥왕 3년(516)의 병부령 설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⁰⁾ 병부령은 ‘兵部令 掌内外兵馬事’²¹⁾라는 바와 같이 내외 병마를 관장하는 직책이다. 법흥왕 때 내외병마를 전담하는 병부령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2부병제의 이원적 군사지휘체제가 일원적인 군사지휘체제로

18) 냉수리비와 봉평비의 비문은 마립간 시기의 중앙군이 2부병제 형태로 운영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냉수리비와 봉평비에 보이는 왕경인 30여 명 가운데 喙部와 沙喙部 소속이 대부분이며, 이들만이 관등을 지니고 있다. 신라는 군사와 정치가 일치된 軍政一致 사회였고, 文武의 구별이 없는 文武一致 사회였다. 모든 관등 소유자는 관료이자 군인이었다. 그런데 喙부와 사훼부 소속 왕경인만이 관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마립간 시기의 군대는 이 2부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 姜鍾薰, 『新羅 六部體制的 成立과 展開』, 『震檀學報』 83, 1997, p.17.

20) 『三國史記』 38, 雜誌 7, 職官 上. ‘兵部 令一人 法興王三年始置’

21)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眞興王 2년 3월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법흥왕은 마립간과 갈문왕이 궐부와 사궐부를 각각 관리하는 2부병제의 이원적 지휘체계를 재편하여 국왕이 병부령을 통해 2부병 모두를 統帥하는 大王 체제를 구축한 것이다.²²⁾ 그리고 진흥왕 5년(544)에는 대왕 체제에 걸맞게 2부병을 통합하여 大幢으로 개편하였다.²³⁾ 대당의 설치로 국왕의 軍에 대한 통제력이 일층 강화되었으며, 체계적인 군관 조직이 정비되었다.²⁴⁾ 그런데 대당의 설치 이후에도 2부병 중심으로 중앙군이 운영되던 관행은 어느 정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창녕비와 남산신성비 등 중고기의 각종 비석들에는 여전히 궐부와 사궐부 소속의 왕경인만이 관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文武가 일치된 신라 사회에서 관등 소유자들은 모두 군관이므로, 중고기에도 군관은 여전히 궐부와 사궐부 소속의 왕경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다.

신라 中古期에 중앙군이 대당 체제로 운영되었다면, 지방군은 停制로 운영되었다.²⁵⁾ 그런데 중고기에 중앙군에는 대당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중고기는 신라가 고구려·백제와의 적극적인 대결을 통해 사방으로 영역을 확대한 시기로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군대가 필요하였다. 이에 진흥왕 5년(544)에는 자원 입대자로 충원되는 三千幢이 대당과 함께 설치되었고,²⁶⁾ 진평왕 5년(583)에는 誓幢, 진평왕 13년(591)에는 四千幢, 진평왕 27년(605)에는 急幢, 진평왕 47년(625)에는 郎幢 등이 각각 설치되었다.²⁷⁾ 중고기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중앙군의 설치와 함께 지방군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신라는 이사금 시기부터 일부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는데, 지증왕 6년(505)부터는 몇몇

22) 대왕 체제에 대해서는 金瑛河, 『韓國古代社會의 軍事와 政治』,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2002 참조

23) 『三國史記』 40, 雜志 9, 職官 下. ‘一曰 大幢 眞興王五年 始置’

24) 진흥왕대 이후 大幢의 군관 조직은 ‘將軍-大監-弟監-少監’ 체계로 정비되고, 5停은 ‘軍主-助人’ 체계를 이루었다고 한다.(朱甫墩, 『新羅 中古期 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新羅 文化』 3·4, 1987.)

25) 大幢과 停制에 대해서는 李文基, 『제2장 I. 大幢 및 停制의 成立과 展開』, 『제3장 I. 大幢 및 停制의 運用實態』, 『新羅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참조

26) 三千幢에 대해서는 李文基, 『제2장 II. 三千幢의 成立과 그 性格』, 앞의 책 참조

27) 『三國史記』 40, 雜志 9, 職官 下

지역을 묶어 통치하는 州를 설치하고 그 지역의 지방군을 총괄하는 軍主를 파견하였다.²⁸⁾ 이때 각 주에 군주와 그 휘하 군사들이 상주하는 군대를 停이라 불렀다.

그런데 삼국 간 전쟁이 장기적인 전면전의 양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군주와 그 휘하 군사들이 상주하는 州 단위로 대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었다. 선덕왕대에 大耶州의 함락으로 인해 일시에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은 州 단위 군대운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었다.²⁹⁾ 신라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 대처의 주안점은 신라의 전군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는데 두어졌다. 이에 신라 중대에 들어서면 비상시에 전군사력을 집결한 행군조직을 결성하여 전면전에 나서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무왕 원년(661)과 문무왕 8년(668)에 편성한 행군조직이다. 그중 문무왕 8년에 편성된 행군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角千金庾信을 大幢大總管으로 삼고, 角千金仁問·欽純·天存·文忠·迺滄眞福·波珍滄智鏡·大阿滄良圖·愷元·欽突을 大幢總管으로, 伊滄陳純·竹旨를 京停總管으로, 伊滄品日·迺滄 文訓·大阿滄 天品을 貴幢總管으로, 伊滄仁泰를 卑列道總管으로, 迺滄軍官·大阿滄都儒·阿滄龍長을 漢城州行軍總管으로, 迺滄崇信·大阿滄文穎·阿滄福世를 卑列城州行軍總管으로, 波珍滄宣光·阿滄長順·純長을 河西州行軍總管으로, 波珍滄宜福·阿滄天光을 誓幢總管으로, 阿滄日原·興元을 闕衿幢總管으로 삼았다.³⁰⁾

위 행군조직은 문무왕 8년에 唐의 유인궤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에 부응하여 편성된 것으로 통일전쟁기 최후, 최대의 규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 군사조직 사이에 장군(총관)의 숫자가 매우 불균등하게 편성되어 있었다. 대당의 총관은 대총관 김유신을 비롯하여 10명, 경정총관 2명, 귀당총

28)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智證麻立干 6년 2월

29) 姜鳳龍, 『新羅 地方統治體制 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p.161~162. 참조

30) 『三國史記』 6, 新羅本紀 6, 文武王 8년 6월 21일

관 3명, 비열도총관 1명, 한성주행군총관 3명, 비열성주행군총관 3명, 하서주행군총관 3명, 서당총관 2명, 계금당총관 2명 등 총 29명의 장군이 각 군사조직에 불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중고기 이후 신라의 국가적 성장과 영역의 팽창 과정에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치해 왔던 다양한 군사조직의 세력차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 행군조직은 7세기 후반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군제개편 작업을 거치면서 새롭게 편제된다.³¹⁾ 7세기 후반 문무왕, 신문왕대는 왕권의 전제화에 기초한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였다. 삼국통일 이후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제도를 비롯한 각종 제도들이 왕권의 전제화와 중앙집권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정비되고 있었다. 군제 역시 이 시기에 전면적으로 개편된 것으로 보인다. 7세기 후반 군제 개편의 특징으로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문무왕 8년의 행군조직에서 불균등하게 배치되었던 장군과 군관이 <표 1>과 같이 균등하게 배치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항상 전선으로 출동할 태세를 갖추어야 했던 중고기와는 달리 왕경의 방어와 전국의 안정을 유지하면 되었던 중대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력의 차이가 심하였던 각 군사조직을 고르게 편제하고, 이들 사이에 상호 견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란을 방지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개재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기에 신라의 중핵적인 군사조직으로 기능한 大幢도 6정의 한 부대로서 다른 6정 부대와 동일한 규모로 편제되었다. 즉 문무왕 8년에 총 10명의 장군을 보유한 대당이 4명의 장군을 보유하는 것으로 축소되었고, 다른 6정·9서당에도 2~4명의 장군을 끌고루 배치하여 장군의 총 숫자를 36명으로 맞추었다.³²⁾ 이러한 조치로써 6정의 대당은 그 이전의 대당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군사조직으로 변질되었다.

31) 7세기 후반의 군제 개편에 대해서는李文基, 「7세기 후반 新羅의 軍制改編과 그 性格에 대한 一試論」, 『韓國古代史研究』 16, 서경문화사, 1999 참고

32) 장군의 숫자를 36명으로 맞춘 것은 신라 중대에 대야찬 이상의 진골 귀족이 모두 36명이었던 것과 관계가 깊다고 본다. 대야찬 이상의 진골 귀족이 36명이라는 것은 문무왕 9년(669)에 행해진 馬陟 수여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신라 중대 중앙관청의 장관직도 36개였다. (金哲垓, 「統一新羅 支配體制의 再整備」, 『한국사3-고대』, 국사편찬위원회, 1984, pp.35~48)

大總管을 보유한 신라 최대의 군사조직에서 다른 6정과 동일한 군사조직으로 그 지위가 떨어진 것이다. 한편 上州停은 貴幢에 흡수 통합되어 大幢과 停制는 여섯 개의 예하 부대를 가진 6정 체제로 정비되었고,³³⁾ 이들 각각에 비슷한 규모의 군관이 배치되어 6정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6정 체제의 완성 시기는 6정 중 맨 마지막에 설치된 완산정의 설치시기(신문왕 5년:685)와 동시이거나 그 이후가 될 것이다.³⁴⁾

또 문무왕 12년(672)~효소왕 2년(693) 사이에는 기존의 誓幢, 郎幢, 長槍幢 등을 녹금서당, 자금서당, 비금서당 등으로 개편하고, 이외에 6개의 서당을 창설하여 9서당을 완성하였다. 물론 이러한 9서당은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그 안에 배치된 무관은 <표 1>과 같은 6정, 9서당, 10정, 5주서, 3무당, 계금당 등의 군사조직이 완비된 상태에서 재조정되었을 것이다. 특히 9서당은 <표 1>과 같은 무관 조직 하에 신라인, 백제인, 고구려인, 말갈인 등을 일반 군인으로 배치하여, 통일신라 정부가 괴정복민도 군인으로 편제할 만큼 포용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외에 삼천당을 10정 안에 포함시키고, 통일 이후 확대된 영역에 걸맞게 청주서, 완산주서, 한산주서, 우수주서, 하서주서 등 5州誓를 새롭게 창설하였으며, 삼무당, 계금당 등도 재편하였다. 계금당은 문무왕 원년과 문무왕 8년의 행군조직에는 大監과 總管 등을 보유한 당당한 군사조직이었으나, 이번의 개편작업으로 대감과 총관이 없는 가장 열세한 군사조직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이러한 군제개편 작업은 7세기 후반 문무왕, 신문왕대를 거쳐 孝昭王 2년(693) 長槍幢을 緋衿誓幢으로 고치면서 마무리되었다. 즉 7세기 후반 문무왕, 신문왕 대에 대대적으로 전개된 군제개편 작업의 결과 <표 1>과 같은 6정과 9서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체제가 성립되었다.

한편 신라 중대의 군제는 전시체제와 평시체제로 구분된다. 평시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뉘었고, 전시체제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6정·9서당 중심의 행군조직으로 이루어

33) 『三國史記』 40, 雜志 9, 職官 下, 武官

34)李文基, 「大幢 및 停制의 成立과 展開」, 앞의 책, 1997, p.81.

〈표 1〉 신라 중대의 전시체제 군관 조직(35)

官等	軍號 軍官	六序				九營幢						十序						五州督			三武幢		합계							
		대당	권산정	우수정	하사정	녹금서당	백금서당	비금서당	황금서당	홍금서당	적금서당	정금서당	고당부리정	거사물정	삼량화정	소량정	미다부리정	남원정	벌리원정	이화예정	창주서	완산주서		우수주서	하사주서	백금무당	적금무당	關袴幢		
전골	將軍	4	4	3	2	2	3	2	2	2	2	2	2	2	2	2	2	2	2										36	
6두품	大官大監	5	5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62	
6-11	隊大監																												38	
	領馬兵							3	3	3	-	3	3	3	3	3	3	3	3	1	1	1	1	1	1	1	1	1		32
10-13	弟監																												63	
	領步兵	3	2	3	2	2	2	2	2	4	4	2	2	2	2	2	2	2	2										32	
12-13	監舍知																												19	
	領步兵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9	
12-17	屬大官	15	15	15	13	12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200	
	領騎兵							6	6	6	3	6	6	6	6	6	6	6	2	2	2	2	2	2	2	2	2	2	81	
	領步兵	6	4	6	4	-	4	4	4	4	8	4	4	4	4	4	4	4					9	9	9				91	
12-17	屬大官	15	10	10	10	10	10	10	10	13	10	13	13	13	13	13	13	13											264	
	領騎兵							6	6	6	-	6	6	6	6	6	6	6	2	2	2	2	2	2	2	2	2		7	81
	領步兵	6	4	6	4	-	4	4	4	4	8	4	4	4	4	4	4	4											88	
7-11	軍師幢主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8	
7-11	大匠尺幢主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8-11	步騎幢主	6	4	6	4	-	4	4	4	4	-	4	4	4	4	4	4	4											61	
8-13	三千幢主																												60	
8-13	著袴幢主							18	18	18	-	18	18	18	18	18	18	18											175	
9-13	黑衣長槍末步幢主	30	22	28	20	-	20	24	20	-	-	20	20	20	20	20	20	20											264	
9-13	三武幢主																												48	
11-13	軍師監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0	
10-13	大匠尺監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5	
11-13	步騎監	6	4	6	4	-	4	4	4	4	-	4	4	4	4	4	4	4											62	
10-13	三千監																												60	
11-14	著袴監							18	18	18	-	18	18	18	18	18	18	18											175	
10-17	三千卒																												150	
합계																												2,188		

졌다. 그런데 중앙군은 두 가지 계통의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4, 5, 6두품이나 진골 등의 신분적 자격을 갖추고 薦擧³⁶⁾나 門蔭(父功),³⁷⁾ 弓術 시험³⁸⁾ 등을 통하여 무관의 지위에 오르는 군인이 있었고, 양인농민으로서

35) 『三國史記』卷40, 雜志 9, 職官 下, 武官條를 정리한 것임. 관등 규정은 李仁哲, 「新羅의 軍官職과 軍事組織의 編制」,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참조

36) 『三國史記』47, 列傳 7, 官昌. “少而爲花郎 善與人交 年十六 能騎馬彎弓 大監某薦之太宗大王”

37) 『三國史記』47, 列傳 7, 奚論. “奚論年二十餘歲 以父功爲大奈麻”

38) 『三國史記』10, 新羅本紀 10, 元聖王 4년조에 “始定讀書三品以出身 ……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성왕 4년 독서삼품과를 제정하기 전에 弓術로 사람을 선발하였다.

의무적으로 징발되는 군인이 있었던 것이다. 전자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였고, 후자는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군역을 치러야 했다. 즉 전자는 官僚田이나 祿品 등을 지급받으면서 군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전투에서 전공을 세울 경우 진흥왕 23년(562) 사다함의 예에서 보듯이 별도의 토지도 지급받았다.³⁹⁾ 이에 비해 후자는 『삼국사기』, 열전, 薛氏女條에 등장하는 薛氏나 嘉實, 『삼국유사』의 竹旨郎條에 등장하는 得鳥나, 승려가 되기 이전의 眞定法師처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징발되어 종군하거나 부역에 동원되었다.

신라의 중앙군은 이와 같이 무관과 양인농민 출신의 의무군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중 무관은 신라 군대의 핵심이었다. 이들은 평상시 양인농민 출신의 의무군인들을 지휘·통제하면서 국왕의 호위와 수도의 경비·방어 등을 담당하였고, 변경의 防戍 등에도 동원되었다. 비상시 국가에서는 <표 1>과 같이 중앙의 무관을 골간으로 하고 중앙군과 지방군을 포괄하는 6정·9서당 중심의 행군조직을 편성하여 돌발적인 사태와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였다. 신라 중대에 중앙 무관의 총수는 2,368명으로 추산된다. <표 1>에 기재된 무관의 합계 2,188명에, 이 표에 기재되지 않은 侍衛府의 무관 180명⁴⁰⁾을 합치면 2,368명이 되는 것이다. 시위부는 평시체제로서, 전시체제를 나타내는 <표 1>에는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다. 이러한 중앙의 무관 2,368명이 평시체제에서 중앙군의 상층부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왕경에 거주하면서 <표 1>과 같이 6정, 9서당, 10정, 5주서, 3무당, 계급당 등의 군관직을 보유한 채, 중앙군의 하층부를 형성하는 농민출신의 의무군인들을 통솔하며 국왕의 호위와 수도의 경비·방어 등 다양한 군무를 수행하였다. 또 신라는 아직 文·武가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시기로서, 무관들은 여러 중앙 관직을 겸직하며 각종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중대의 지방군은 州·郡·縣으로 이루어진 지방제도에 따라

39)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眞興王 23년 9월.

40) 『三國史記』 40, 雜志 9, 職官 下, 武官條에는 맨 앞에 侍衛府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시위부는 將軍 6인, 大監 6인, 隊頭 15인, 項 36인, 卒 117인 등 총 180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주에는 師子衿幢, 緋衿幢 등의 군단이 있었고, 군·현에는 法幢軍團이 편성되어 있었다.⁴¹⁾ 법당군단이란 '法幢'을 冠稱한 여러 군관들, 즉 法幢主, 法幢監, 法幢火尺, 法幢頭上, 法幢辟主 등의 군관이 지휘하는 여러 부대들을 포괄하는 군사 조직을 통칭하는 것이다.⁴²⁾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서 법당군단에 해당하는 부대를 찾아보면, 주로 문관 업무를 하는 관료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百官幢과 특수병기를 제작하는 四設幢, 왕경을 비롯한 지방의 여러 지역에 배치된 三十九餘甲幢(京餘甲幢·小京餘甲幢·外餘甲幢), 餘甲幢, 外法幢, 軍師幢, 師子衿幢 등이 발견된다. 이들 중 특히 지방군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경여갑당·소경여갑당·외여갑당, 여갑당, 외법당 등이다. 경여갑당은 왕경의 주민들로 편성된 부대였고, 소경여갑당은 소경과 소경 주변의 촌락민으로 편성된 부대였으며, 외여갑당은 지방의 군·현에 편성된 부대이다. 이들 법당군단의 군관은 각 지방관이 겸하였으며, 군인은 재지의 농민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당군단 체제는 평시체제로서, 유사시 법당군단의 군인들은 <표 1>과 같은 전시체제 하에서 각 군대의 일반 병졸로 편입되었다.

지금까지 신라 상대·중대 군제의 개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신라 건국 이후 이사금 시기까지는 6부병 체제를 이루었고, 마립간 시기에는 2부병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중고기에는 大幢과 停制로 운영되다가, 삼국 통일을 완수한 중대 이후에는 6정·9서당 체제를 갖추었다. 신라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군제 역시 성장·발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정·9서당 체제를 정점으로 최고도로 발전한 신라의 군제는 하대에 들어와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41) 신라 중대 지방군에 대해서는 拙稿,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研究』 126, 2004 참조

42) 法幢軍團에 대해서는 李仁哲, 『新羅 法幢軍團과 그 性格』,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참조

3. 신라 下代 軍制의 변화와 鎭의 설립

7세기 후반에 재편된 6정·9서당 중심의 군사체제는 전국을 아우른 전시체제·행군조직이었다. 특정 지명을 부대 명칭에 앞에 붙이고 유사시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무관을 주축으로 그 지역의 지방군을 동원하여 전시체제를 갖춘다는 전략 하에 수립된 6정, 9서당, 10정, 5주서 형태의 전시체제는 전국에 대한 확고한 지배체제 구축과 철저한 군사행정이 뒷받침될 때에만 실행 가능한 것이었다. 실제 6정·9서당 중심의 군사체제가 마련된 7세기 후반 문무왕, 신문왕 때에는 확고한 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철저한 군사행정이 가능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국사에 소홀하였다고 摠管들을 처형하고,⁴³⁾ 김흠돌 난에 대한 불고지죄로 내외병마를 총괄하는 兵部丞을 자결케 하였으며, 모반에 가담한 자들은 “枝葉까지 샅샅이 찾아서 모두 이미 죽였다”⁴⁴⁾라고 언급할 정도로 왕권이 강력한 시기였다. 따라서 모든 군사력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으며 <표 1>과 같이 복잡한 전시체제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개인이 私兵을 거느리는 것과 같은 왕권에 反할 수 있는 행태는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신문왕이 병부령 군관을 처벌하면서 내린 교서에서 ‘事上之規 盡忠爲本 居官之義 不二爲宗’⁴⁵⁾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국왕에 대한 충성과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따라서 사병과 같은 군사 조직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중대의 군제는 붕괴되어 갔다.

중대 군제의 붕괴는 우선 신라 군제에 내재한 私兵制의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私兵과 私兵制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사병은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 포함되지 않고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 사적으로 예속된 무력 집단’이지만, 사병제는 ‘국가의 공적인 군제에서 장군(지휘관)과 군인이 비교적 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즉 사병제는 군사지휘체계와 관련

43) 『三國史記』 6, 新羅本紀 6, 文武王 2년 8월

44) 『三國史記』 8, 新羅本紀 8, 神文王 원년 8월

45) 『三國史記』 8, 新羅本紀 8, 神文王 원년 8월

된 용어로서, 사병제의 반대는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이 없는(無定軍 無定將) 상태로 운영되는 公兵制이다.⁴⁶⁾ 우리나라에서 공병제가 시행된 시기는 고려 광종 이후~무신정변 전까지와 조선 태종 즉위년 사병혁파 이후~임진왜란 전까지이다. 고려 광종 이후 공병제가 시행될 때에는 지휘관과 병사 간에 사적인 접촉은 일체 금지되었다.⁴⁷⁾ 또 조선 태종 즉위년(1400) 사병혁파 이후에도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거느리고 사냥 가는 것조차 금했으며,⁴⁸⁾ 병조의 공문이 없으면 지휘관들이 단 1명의 군인들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없었다.⁴⁹⁾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사병제 혁파, 공병제 시행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태종 14년(1414) 4월 代言 韓尙德은 사병(제) 혁파 이후

사병을 혁파하였기 때문에 군사가 장수의 얼굴을 알지 못하니,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장수가 비록 위태하더라도 구원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장수는 군사를 훈련하지 못하고, 군사는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두 힘써 싸우지 않으니, 어찌 반드시 이길 수 있겠는가?⁵⁰⁾

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고 국왕에게 아뢰고 있다. 세종 29년(1447) 申叔舟 역시 ‘將不識兵 兵不知將’하여 군사력이 허약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사병제의 복구를 요청하는 책문을 올리고 있다.⁵¹⁾ 조선후기의 실학자 반계

46) 사병제와 공병제에 대해서는 拙稿, 『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 73, 2000 ; 『朝鮮初期 中央軍制의 整備와 私兵制 改革』, 『朝鮮의 政治와 社會』, 集文堂, 2002 ;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혜안, 2003, 79~81쪽 참조

47) 『太宗實錄』 27, 太宗 14년 2월 癸丑, 2책, p.6. ‘前朝盛時 侍衛之兵 止於更番入直 不敢私謁於其將 道途相遇 亦不敢私語’ ; 『世宗實錄』 31, 世宗 8년 정월 乙未, 3책, p.4. ‘前朝盛時 令掌兵者 遇諸道路 不敢私語’

위 사료에서 ‘前朝盛時’는 광종 이후 고려전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지휘관과 병사 간의 사적인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반 위주의 정치체제가 성립할 수 있었다.

48) 『太宗實錄』 13, 太宗 7년 4월 辛卯, 1책, p.389. ‘兵曹上軍政事目 … 各軍總制 率其軍屬 甲士 私行田獵者 痛行禁斷’

49) 『世宗實錄』 66, 世宗 16년 10월 庚午, 3책, p.599. ‘無兵曹公文 雖一隊副 護軍不得擅發’

50) 『太宗實錄』 23, 太宗 12년 4월 丙子, 1책, p.633.

51) 申叔舟, 『保閑齋集』 권13, 策 『置私兵 禮大臣 分政權 復政房』

유형원도 태종의 사병(제) 혁파는 고려말 君弱臣強의 상황을 방지하고자 취해진 조치이지만 ‘無定軍 無定將’하여 군정의 문란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하였다.⁵²⁾ 이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공병제는 왕권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면도 있었다. 이에 반해 사병제는 지휘관 휘하에 고정된 군인들이 배속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왕권에는 위협이 되는 면도 있었다.

신라의 군사지휘체계는 사병제의 형태를 취하였다. 근래에 “진골 장군인 金欽春·金品日이 영솔한 부대에 각각 그 아들들인 盤屈과 官昌이 속해 있었던 것이나, 김유신 가문의 家臣의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노비까지 대동하고 대거 그의 휘하로 전투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신라의 군사력은 진골 귀족의 사병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가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⁵³⁾ 그러나 신라 중대까지 진골 세력은 사병을 양성할 수 없었다. 앞의 예는 신라의 군사력이 진골 세력의 사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병제의 한 특징인 것이다. 사병제 하에서 지휘관은 휘하 군인들을 선발하기도 하고,⁵⁴⁾ 자신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출전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진골 귀족의 사병인 것은 아니고 이들은 엄연히 국가에서 녹을 받는 군인이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少監과 火尺 중에는 ‘屬大官’이라 하여 장군 개인에게 소속된 군인이 있었다.⁵⁵⁾ 장군들은 ‘屬大官’으로 규정된 소감과 화척의 軍職에 자신의 가족과 가신들을 임명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병제의 운용은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서 신라는 이로써 삼국통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병제 하에서 군인들은 국왕보다도 자신의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지휘관

52) 柳馨遠, 『磻溪隨錄』 권21, 兵制, 五衛. (東國文化社 影印本, p.390)

53) 姜鳳龍, 「6~7세기 신라의 병제와 지방통치조직의 재편」, 『역사와 현실』 4, 1990, p.62.

徐毅植, 「統一新羅期の 開府와 眞骨의 受封」, 『歷史教育』 59, 1996, p.105.

54) 『三國史記』 41, 列傳 1, 金庾信 上. ‘庾信揀得國內勇士三千人’

55) 사병제로 운영된 조선후기 역시 將官에게 소속된 군인이 있었다. 훈련도감의 예를 들면, 훈련대장에게는 무려 885명의 군인이 소속되었고, 中軍은 10명, 別將은 50명, 千總은 43명의 군인이 각각 소속되고 있다. (拙稿,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혜안, 2003, p.93. <표 3-3> 참조)

의 요구에 따라 반란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따라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에는 사병제의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왕권이 불안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 중대 말 혜공왕 때부터 나타난 각종 반란은 이러한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형태로 판단된다.

신라 하대에 들어와서는 중대까지 금기시되던 사병의 양성도 성행하였다. 8세기 후반의 상황을 전하는 『新唐書』, 신라전의 '宰相家不絶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라는 구절과 같이 이제 재상들은 사사로이 甲兵을 기르고 있었다. 진골 귀족들은 가족 내에 家兵, 族兵을 양성하고, 門客들은 군사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대에 들어와 진골 귀족들은 자신들이 양성한 사병과 사병제 하에서의 휘하 군인들을 동원하여 왕위쟁탈전에 나섰다. 그리고 군사적 실력자가 왕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6정·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는 붕괴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9세기 초 애장왕대(800~808)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高仙寺 「誓幢和尚碑」에는 비문을 새긴 인물이 '音里火三千幢主 級滄 高金□'로 기록되어 있어, 9세기 초까지 10停(三千幢)의 명칭이 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문을 새긴 사람이 軍職名을 지닌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하대에 들어와 6정·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는 해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행군조직의 활동은 하대 이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실제 전시상황에서는 이와 다른 행군조직이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하대의 대표적인 행군조직은 다음과 같이 金憲昌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된 3군 조직이다.

3월에 熊川州都督(金)憲昌이 아버지 周元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하여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세위 慶雲 원년이라 하였다. … (중략)… 마침내 員將 8인을 차출하여 王都의 8方을 지키게 하였다. 그런 후에 군사를 출동시켰다. 一吉滄 張雄이 먼저 출발하고, 迺滄 衛恭, 波珍滄 梯凌으로 하여금 뒤를 잇도록 하였다. 伊滄 均貞, 迺滄 雄元, 大阿滄 祐徵 등이 3軍을 통솔하고 출정하였다.⁵⁶⁾

56)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憲德王 14년 3월

위 기록은 헌덕왕 14년(822)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자, 신라 중앙정부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출동시키고 있는 내용을 전한 것이다. 여기서 행군조직은 선발대에 이어 본진인 3軍(左軍, 中軍, 右軍)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3군이라는 것은 『周禮』에 의하면 대국 제후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 편제이지만,⁵⁷⁾ 중국 춘추시대 이래 널리 사용된 행군조직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국식 행군조직인 3군이 6정·9서당·10정·5주서·3무당·계급당 등으로 이루어진 신라의 전통적인 행군조직을 밀어내고 새롭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은 헌덕왕 14년(822) 무렵에는 이미 6정, 9서당 형태의 행군조직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정·9서당 형태의 행군조직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국에 대한 확고한 지배체제 구축과 철저한 군사행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덕왕 14년 무렵에 들어와서는 中代와 같은 전국적인 지배체제 구축과 철저한 군사행정의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파악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3군을 편성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신라 군제의 붕괴는 전시체제뿐만 아니라 평시체제에서도 진행되고 있었다. 신라의 평시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분되었고, 중앙군은 무관과 번상 농민병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무관은 신라 군대의 핵심이었다. 이들은 평상시 번상 농민병들을 통솔하면서 국왕의 호위와 수도의 경비·방어 등을 담당하였고, 변경의 防戍 등에도 동원되었다. 내란이나 외침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일 경우 국가에서는 이들을 주축으로 대처하였고, 대규모일 경우에는 무관을 골간으로 하고 지방군을 포괄하는 행군조직을 편성하였다. 무관들은 신라의 국가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무력적 기반인 것이다. 신라 중대에는 지방 군현이 중앙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중앙 정부를 배반하면 왕경에서 출동한 무관들에 의하여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압감이 상존하였다. 삼국통일 전쟁기에 보여준 무관들의

57) 『周禮』, 「夏官 司馬」. 「凡制軍 萬有二千五百人爲軍 王六軍 大國三軍 次國二軍 小國一軍」

용맹스러운 활동은 지방 세력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⁵⁸⁾

그러나 삼국통일 이후 평화가 지속되면서 호전적인 무관의 존재는 신라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었다. 이들이 정치적 야심이 있는 진골 귀족과 결합할 경우 언제든지 정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라 정부는 정치·사회적 안정을 위해 崇文抑武 정책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 무열왕이 삼국통일 이후 병기와 투구를 감추었다는 鑿藏寺와 관련된 전설이나,⁵⁹⁾ 문무왕이 ‘兵戈를 녹여 農器를 만들라’⁶⁰⁾는 遺詔를 내린 것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원성왕 4년(788)에는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여 종래 弓術로 관리를 선발하던 데에서 유교경전의 해독 수준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⁶¹⁾ 이것은 주로 6두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골적인 승문역무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그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이다. 또 신라 정부는 지방관을 문인으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비록 신라 시기에는 文武의 구별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문인 성향의 인물이 지방관에 취임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것은 원성왕 5년(789)의 다음 기사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원성왕 5년) 9월에 子玉으로 楊根縣 小守를 삼으니 執事史 毛肖가 반박하여 말하길 “子玉은 文籍出身이 아니므로 分憂之職을 맡길 수 없다”라 하였다. 이에 侍中이 “비록 그가 文籍出身은 아니지만 일찍이 唐에 가서 學生이 되었으니 어찌 쓰지 못하겠느냐?”하자 왕이 이를 따랐다.⁶²⁾

위 사료를 통해 원성왕 5년 이전부터 이미 지방관에는 文籍出身, 즉 국학의 졸업생만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물론 지방관의 문인화를 통해 유교 이념의 확산, 왕권의 안정 등을 꾀하려는 집권

58) 李仁哲, 「第4章 新羅 支配體制의 崩壞와 軍事組織」, 『新羅政治制度史研究』, 一志社, 1993, p.406.

59) 『三國遺事』 3, 塔像 4, 鑿藏寺 彌陀殿. ‘諺傳 太宗統三已後 藏兵鑿於谷中 因名之’

60) 『三國史記』 7, 新羅本紀 7, 文武王 下 21년. ‘鑄兵戈爲農器’

61)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元聖王 4년. ‘始定讀書三品 … 前祇以弓箭選人 至是改之’

62)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元聖王 5년 9월

층의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호전적인 무관들의 사기를 억누르는 효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료들은 무예 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신라 중앙군의 군사력 약화로 이어졌다. 하대에 들어와 文弱해진 중앙의 무관들은 더 이상 지방 세력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민애왕 2년(839) 정월 대구에서 대장군 金昕 등 중앙의 무관이 통솔하는 10만 군대는 장보고의 청해진 군대에 패배하여 민애왕은 피살되고 신무왕이 즉위하였다.⁶³⁾ 또 진성여왕 3년(889)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중앙에서 파견된 奈麻 舍壽는 두려워 떨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였다.⁶⁴⁾ 신라 하대에 중앙의 무관들은 더 이상 신라의 국가 질서를 유지해주는 무력적 기반이 아니었던 것이다.

6정·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가 무너지고, 중앙 무관의 군사력도 점차 쇠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위 태세는 지방 요충지에 군사기지인 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⁶⁵⁾ 신라는 이미 상고기부터 지방 주요 거점에 진을 설치한 바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4년(157)조에 보이는 ‘長嶺鎭에 巡幸하여 戍卒을 위로하였다.’⁶⁶⁾라는 구절이나, 나해이사금 27년(222)조의 ‘鎭主’, 소지마립간 15년(493)의 ‘臨海鎭과 長嶺鎭’, 소지마립간 22년(500)의 ‘長峰鎭’ 등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 2세기 중엽부터 5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신라에는 鎭主의 지휘 하에 戍卒이 주둔한 진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5세기 말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는 진은 중고기나 중대의 자료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6세기 이후 주군제 시행과정에서 행정 단위가 주·군·성(촌) 등으로 일괄 재편되었다는 것과 중고기의 지방통치조직이 군사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⁶⁷⁾ 이와 같이 5세기 말 이후 그 존재가 사라진 진이 300여 년이 지난 下대에 다시 등장하여 지역 방어에 나선

63)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閔哀王 2년 : 『三國史記』 44, 列傳 4, 金陽

64)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眞聖王 3년

65) 신라 하대의 鎭에 대해서는 주 7)의 논문 참조

66) 『三國史記』 2, 新羅本紀 2, 阿達羅尼師今 4년 3월

67) 李文基, 『統一新羅期の「北鎭」과 軍事的 位相』, 앞의 책, 1994, p.303.

것이다.

무열왕 5년(658)에 北鎭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진의 설치가 일반화된 것은 신라 하대이다. 하대에 들어와 선덕왕 3년(782)의 溟江鎭 설치를 시작으로 淸海鎭(흥덕왕 3년, 828), 唐城鎭(흥덕왕 4년, 829), 穴口鎭(문성왕 6년, 844), 長口鎭 등이 설치된 것이다. 청해진은 전남 완도에, 당성진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에, 혈구진은 강화도에, 장구진은 황해도 장연군 장산곶 근처에 위치하였다. 이처럼 해상 교통의 요지에 대규모의 군대가 주둔하는 진을 설치하였다는 점에서 신라는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확보와 해양 방어의 목적 등으로 진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현창 난의 진압과 관련하여 화랑 安樂이 施彌知鎭을 향하여 갔다가(68), 『고려사』에서 신라 말에 설치되었다고 짐작되는 沙火鎭, 昵於鎭, 阿弗鎭 등 여러 진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신라는 해상 교통의 요지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진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⁹⁾

진은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기지로서 지방의 행정조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진은 지방의 州·郡과 행정적으로 상하 관계에 놓여있지 않았고, 진에 주둔한 군대 역시 지방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漢山·牛頭·敵良·溟江·北原 등은 현창의 모반을 미리 알고 擧兵自守하였다.⁷⁰⁾

위 기록은 김현창의 난이 일어나자 한산주와 우두주, 양주 그리고 패강진과 북원경이 김현창의 역모를 미리 알고 '擧兵自守'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한산과 패강이 별도로 '거병자수'하였다고 언급한 대목이 유의된다. 패강진이 한산주의 영역 내에 있지만 한산주와 패강진은 군령체계상 상하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즉 패강진의 군대는 한산주에 소속된 군대와

68)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憲德王 14년 3월

69) 全德在, 「新羅 下代 鎭의 設置와 性格」, 앞의 책, p.46.

70) 주 56)과 같음.

별개의 군령계통이었다. 이렇게 패강진에 주둔한 군대가 한산주 도독의 지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 헌덕왕 12년 조에 北鎭에서 狄國人(말갈인)이 판목을 놓고 가자 그 사실을 조정에 直報하였다는 내용 역시 북진이 朔州의 관할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던 사실과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한편 청해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장보고가 중앙정계의 막강한 실력자로 부상하였는데, 이것 역시 청해진이 지방 州·郡의 통제를 받지 않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⁷¹⁾

신라 하대에는 남해안(청해진), 서해안(당성진·혈구진·장구진), 동북방의 변경지역(북진), 서북방의 변경지역(패강진), 그리고 내륙지방 여러 곳에 진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진들은 왕경에서 먼 거리나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았다. 이들은 변방이나 주요 지역에 대한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또한 이들은 州 都督 등 지방관이 지방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활용 가능하였다. 그러나 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진의 군사력은 오히려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4. 신라 말 軍制의 붕괴와 후삼국의 성립

신라의 군사제도는 전시체제와 평시체제로 구분된다. 평시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루어졌고, 전시체제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재편성된 행군조직으로 운영되었다. 중앙군이 평상시 국왕의 시위와 수도의 경비·방어 등을 담당하며, 때에 따라서는 변방 방어의 임무에도 나서는 군사라면,

71) 全德在, 앞의 논문, p.61.

지방군은 일정한 지역의 방위를 전담하는 군사였다. 그런데 신라 시기에는 중앙군이 지방군보다 훨씬 중요하였다. 이것은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한 중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強幹弱枝’, ‘內重外輕’, ‘以內御外’ 등으로 표현되는 바와 같이 중앙군을 강력하게 하고, 이러한 중앙군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방을 통제한다는 것이 중세시기 중앙집권국가의 통치 원리였던 것이다. 신라는 중대까지 이러한 통치 원리에 따라 강력한 중앙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하대에 들어와 승문역무 정책과 잇따른 권력쟁탈전 등으로 인하여 중앙군의 군사력은 약화되어 갔다. 중앙군의 약화는 결국 중앙집권체제의 붕괴, 신라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게 된다.

진성여왕 즉위 직전까지 신라 사회는 내부적으로 중앙군의 약화가 진행되었으나, 표면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49대 헌강대왕 때에는 서울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이 이어져 있고 초가는 하나도 없었다. 음악과 노랫소리가 길에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사철 순조로웠다.⁷²⁾

진성여왕이 즉위하기 불과 몇 년 전인 헌강왕 때에 신라 사회는 위와 같이 번영을 구가하였다. 『삼국사기』에서도 이 시기에 “민간에서는 집을 기와로 덮고 짚으로 잇지 않으며, 밥을 지을 때 숯으로 하고 나무로 하지 않는다.”거나, “해마다 풍년이 들어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또 변경이 안온하고 市井이 환락하고 있다.”라는 君臣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⁷³⁾ 군사제도 역시 표면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견훤은) 從軍하여 서울에 들어왔다가 西南海 防戍에 나가 창을 베개로 삼고 적을 기다렸다.⁷⁴⁾

72) 『三國遺事』 2, 紀異 2, 處容郎 望海寺

73)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憲康王 6년 9월 9일

74) 『三國史記』 50, 列傳 10, 甄萱

견훤이 종군한 것은 현강왕 때로 보이는데,⁷⁵⁾ 위 기록을 통해 이때까지 군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앙군은 무관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어 국왕의 시위, 수도의 방어뿐만 아니라 防戍 임무에도 동원되고 있었다. 무관은 전원 왕경인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주출신인 견훤은 당연히 농민군으로서 군역에 동원되어 서울에 왔다가 서남해 지역의 鎭에 배치되어 방수 근무에 임하였다. 이를 통해 진성여왕 즉위 직전까지 군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중앙군은 극도로 약화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평온과 변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의 평온과 변영은 농민 계층의 희생에 기초한 것으로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면 이를 억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진성여왕 3년(889) 정부에서 州郡에 사신을 보내 납세를 독촉하자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전개되었다. 이때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중앙에서 파견된 奈麻 舍奇는 두려워 떨며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다고 한다.⁷⁶⁾ 대구모 농민봉기를 진압하는 데 奈麻(11등급)를 내보낼 만큼 당시 신라의 위기관리능력은 부재하였고, 또 그나마 출동한 무관이 두려워 떨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할 정도로 중앙군의 전투력은 형편없었다. 이와 같은 중앙군의 약화와 무능은 국가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진성여왕 10년(896)에는

도적이 나라의 서남 방면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붉은 바지를 입었으므로 사람들이 赤袴賊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州縣을 해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에 이르러 민가를 겁탈하고 돌아갔다.⁷⁷⁾

75) 신라시기에 양인 남자들은 15~60세까지 군역에 동원되었으니, 견훤이 종군한 것도 대체로 15세 무렵으로 판단된다. 견훤은 경문왕 7년(867)에 태어났으므로(『三國遺事』 2, 紀異 2, 後百濟 甄萱, ‘三國史本傳云 甄萱尙州加恩縣人也 咸通八年丁亥生’) 현강왕 7년(881) 무렵에 종군하여 중앙군이 되었을 것이다.

76)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眞聖王 3년

77)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眞聖王 10년

라고 하여,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 전라도 방면에서 경주 지역인 모량리까지 거침없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다. 신라는 지방군 체계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조차 방위할 능력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신라 정부의 무능과 약체가 폭로되자 신라 전역은 순식간에 동란에 휩싸이게 된다.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마비되고 수도조차 방위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국 각처에서 도적들이 횡행하자 개인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방어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신라 말 衣冠의 후예들이 다투어 무예를 써서 주현을 장악하였다.”⁷⁸⁾라는 『연조귀감』의 기사는 유력한 개인들이 재산이나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갖추고 주현을 장악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지략이 있었다.”⁷⁹⁾는 昧谷城主 龔直이나, “사람됨이 침착하고 용감했으며 병법에 능했다.”⁸⁰⁾는 鶻巖城帥 尹瑄의 예와 같이 군사적 능력이 있는 자들은 농민을 불러 모아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방관을 대신하여 주현을 장악하고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였다.

李愬言은 世系를 모르는 자인데, 신라 말에 벽진군을 지키고 있었다. 이때 群盜가 사방에서 일어났으나 총언이 城을 굳게 지키니 백성들이 의지하여 안도하였다.⁸¹⁾

이 기록은 집안 내력도 알 수 없는 이총언이라는 자가 성을 굳게 지켜 백성들이 안도하였다는 자료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 도처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심지어 산곡 간에 근거지를 둔 사원에서도 자체적인 군사 조직을 마련하여 농민군들의 습격에 대비해야 했다. 「오대산사 길상탐사」에서 “法衆(승려와 불법제자)이 綠林(도적의 무리)과 싸워 죽었다.”는 문구가 확인

78) 『椽曹龜鑑』 1, 吏職名目解, 戶長. ‘羅末 衣冠之裔 競用豪武 霸於州縣’

79) 『高麗史』 92, 列傳 5, 龔直. ‘自幼有勇略’

80)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尹瑄

81)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李愬言

되고 있다.⁸²⁾

각 개인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도적을 방지하고, 통치권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신라의 지방제도와 지방군제는 해체되었다. 중대 이래 지방제도는 9주 5소경, 115군 286현으로 이루어졌고, 이들 州·郡·縣에 각각 지방군이 배치되었다. 주·군·현은 상하 위계를 갖고 지방군의 지휘체계로도 기능하였으니, 州의 장관인 都督은 州治의 지방군뿐만 아니라 관내 군·현의 지방군 전체를 통솔하였다. 그러나 진성여왕 3년 농민봉기 이후 주·군·현의 상하 지휘체계는 무너졌다. 이와 같이 신라의 지방제도와 지방군이 해체된 뒤 지방사회의 중심이 된 것은 城이었다. 크고 작은 공방전이 수시로 벌어지던 시기에 지역별로 자위조직을 꾸리고 통치권을 확보한 소규모 지역단위 지배자들이 나타나던 상황에서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그래서 郡·縣 명칭 대신에 城이라는 이름이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⁸³⁾ 중고기까지 쓰이다가 中代에 사라진 城이라는 명칭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의 지배자들은 城主·將軍이라 불렸다.⁸⁴⁾ 헌덕왕 11년(819)에는 초적을 잡으라는 명령을 州郡의 都督·太守에게 내리고 있음에 비하여,⁸⁵⁾ 효공왕 9년(905)에 이르면 城主들에게 싸우지 말고 굳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어서,⁸⁶⁾ 신라 말 지방통치의 담당자는 도독·태수·현령 대신에 城主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의 지배자들은 知州諸軍事라 불리기도 하였다. 지방제도가 붕괴되자 9개에 불과하던 州의 명칭이 인플레이 되어 곳곳에 붙여졌고, 이곳의 지배자들을 지주제군사라 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⁸⁷⁾

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이 해체되고, 개인이나 지역이 자체적으로 도적

82) 『五臺山寺 吉祥塔詞』, 沙門僧訓 撰, 『護國三寶 法衆願同 交刃綠林 亡身岳叢』

83) 하일식, 「신라 말, 고려 초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 『한국중세사연구』 29호, 2010, p.68.

84) 성주·장군에 대해서는 崔鍾奭,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대두와 변동추이」,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2000 : 「羅末麗初 城主·將軍의 정치적 위상과 城」, 『韓國史論』 50, 2004 참조

85)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10, 憲德王 11년 3월, 「草賊遍起 命諸州郡都督太守捕捉之」

86) 『三國史記』 12, 新羅本紀 12, 孝恭王 9년 7월, 「命諸城主 慎勿出戰 堅壁固守」

87) 지주제군사에 대해서는 全基雄,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慶南史學』 4, 1987 참조.

을 방비해야 하는 상황은 신라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주었다. 진성여왕 7년(893) 賀正使가 되어 당나라로 가야 하는 崔致遠이 도적 때문에 가지 못할 정도로 통행이 불편하였고,⁸⁸⁾ 『삼국사기』, 孝女知恩傳에서 보듯이 국왕이 효녀 知恩에게 상으로 내린 곡식을 도적들에게 빼앗길까봐 군인들이 번갈아 지켜야 할 정도로 치안은 불안하였다.⁸⁹⁾ 또 도적들이 도처에서 출몰하여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산천은 모두 전쟁터로 변해갔다.⁹⁰⁾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백성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켜줄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요구하였다. 그런데 당시 각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성주·장군이나 지주제군사 등은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킬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농민들을 불러 모아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한 자들로서 자신의 지역을 방어하기에도 급급하다. 신라 말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전국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훈련된 군사력을 갖춘 사람이 등장하여야 했다. 이러한 백성들의 여망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견훤과 궁예였다.

견훤과 궁예는 여타 성주·장군과는 달리 조직적이고 훈련된 군사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즉 이 시기 성주·장군들이 주로 농민을 불러 모아 자기 지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던 것에 비해 견훤과 궁예는 鎭의 병력을 흡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을 수립하여 후삼국 통일 전쟁에 나섰던 것이다. 우선 견훤의 경우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견훤은 상주 출신으로 중앙군이 되어 入京하였다가 서남해 지역의 防戍軍으로 파견되었다. 중앙군이 防戍하러 가는 곳은 일반 郡·縣이 아니었다. 군·현에는 각각 자기 지역민으로 구성된 지방군이 있었으므로 중앙의 방수군이 필요하지 않았다. 방수군들은 교통의 요지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설정된 鎭에 파견되었다. 비록 견훤이 파견된 서남해 지역 진의 이

88) 『三國史記』 46, 列傳 6, 崔致遠.

89) 『三國史記』 48, 列傳 8, 孝女知恩. ‘大王聞之 亦賜租五百石 … 以粟多恐有剽竊者 命所司差兵番守’

90) 『東文選』 33, 謝嗣位表. ‘群戎益熾於東陵 餘粒莫棲於南畝 … 山川皆是戰場’

름이 사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지역이 淸海鎮 이래 군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으므로 鎭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⁹¹⁾ 이곳에서 견훤은 “창을 베고 자면서 적을 기다리고 용기가 항상 다른 士卒보다 앞섰으므로 그 공로로 裨將이 되었다.”⁹²⁾고 한다. 군진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기반을 굳힌 견훤은 진성여왕 6년(892) 방수군을 이끌고 신라 서남쪽 주현을 진격하고 무진주를 습격하여 왕을 칭하였다. 즉 견훤의 군사적 기반은 신라 진의 군사력을 기초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⁹³⁾

궁에 또한 군진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왕위에 올랐다. 北原賊 양길의 부하로 들어간 궁예는 진성여왕 8년(894) 6백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명주(강릉)로 들어갔다. 이때 6백여 명은 양길의 휘하 군사로서 대부분 초적의 무리였을 것이다.⁹⁴⁾ 그런데 6백여 명이었던 궁예의 병력은 다음과 같이 명주에서 대폭 증강되었다.

乾寧 元年(894) (궁예가) 溟州로 들어갔다. 거느린 무리가 3천 5백 명이었는데 나누어 14隊로 하고 金大·黔毛·昕長·貴平·張一 등을 舍上(舍上은 部將을 말한다.)으로 삼았다.⁹⁵⁾

이 3천 5백 명으로 늘어난 군인 속에는 北鎭의 군사력이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⁹⁶⁾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열왕 5년(658) 悉直(삼척)에 北鎭이 설치된 바 있다.⁹⁷⁾ 실직에 있던 북진은 경덕왕 16년(757) 무

91) 배재훈, 「견훤의 군사적 기반」, 『新羅文化』 36집, 2010, p.192.

92) 『三國史記』 50, 列傳 10, 甄萱.

93) 申虎澈,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一潮閣, 1996, pp.27~29. ; 李喜寬, 「甄萱의 後百濟 建國過程上의 몇 가지 問題」,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pp.43~45. ; 李文基, 「甄萱政權의 軍事的 基盤」,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94)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11, 眞聖王 8년 10월.

95)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96) 이기백 교수는 궁예가 명주(강릉)로 갔을 때 거느리고 있었다는 3천 5백 명의 군사는 北鎭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高麗 京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97, p.47.)

97) 北鎭에 대해서는 李文基, 「統一新羅期の 北鎭과 軍事的 位相」, 『九谷 黃鍾東教授 停年紀念 史學論叢』, 1994 참조.

렵 泉井郡(덕원·원산)으로 이동하였으나, 신라 말 군사력의 약화와 말갈의 발호 속에서 다시 남쪽으로 후퇴하였다.⁹⁸⁾ 이때 북진은 덕원(원산)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강릉 부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궁예는 3천 5백 명으로 군사가 늘자 즉시 이들을 14隊로 나누고 部將을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신속한 군사 편제는 이들이 평소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鎭軍과 같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후 궁예는 猪足(인제)·狝川(화천)·夫若(금화)·金城(금화군 금성면)·鐵圓(철원) 등지를 점령하고 패강진 군사력을 받아들인 다음 ‘開國稱君’하였다.⁹⁹⁾ 특히 패강진 군사력이야말로 궁예가 ‘개국칭군’할 수 있었던 무력적 기반이었다. 패강진은 선덕왕 3년(782)에 설치되어 궁예의 세력권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백년이상 존속된 군진이었다. 무려 26개의 군현을 거느리고 있었고,¹⁰⁰⁾ 그 정치적·군사적 비중도 커서 여러 군진 가운데 오직 패강진만이 『삼국사기』 직관지의 외관조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패강진을 흡수함으로써 궁예는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즉 궁예의 군사적 기반은 북진이나 패강진 등 군진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 하대에 정부는 남해안(청해진), 서해안(당성진·혈구진·장구진), 동북방의 변경지역(북진), 서북방의 변경지역(패강진) 등에 鎭을 설치하였다. 이 진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 하에 있었기 때문에 州都督 등 지방관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라 말기에 이르러 중앙군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鎭은 오히려 중앙정부를 공격하는 반군에 흡수되어 그 중심 군사력으로 변질되었다. 견훤은 남해안에 있었던 鎭軍을 이끌고 후백제를 세웠으며, 궁예는 북진과 패강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후고구려를 세웠던 것이다.

98) 조이욱, 「8~9世紀 新羅의 北方經營과 築城事業」, 『신라문화』 34, 2009, p.158.

99)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100) 姜鳳龍, 앞의 논문, 1997.

5.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上代(上古期·中古期)와 中代에 이루어진 군제의 개편, 신라 下代 군제의 변화와 鎭의 설립, 그리고 신라 말 군제의 해체와 후삼국 성립의 군사적 기반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라는 천년의 역사 동안 대략 5번에 걸쳐 군제가 크게 변화하였다. 즉 신라의 군제는 6부병제(이사금 시기)→2부병제(마립간 시기)→대당과 정제(중고기)→6정·9서당 체제(중대)→3군제(하대)로 변화하였다. 특히 6정·9서당 체제를 정점으로 최고도로 발전한 신라의 군제는 하대에 들어와 급격하게 붕괴하게 된다.

신라 군제 붕괴의 원인으로 우선 사병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사병제는 고정된 지휘관과 고정된 군인이 없는(無定軍 無定將) 상태로 운영되는 공병제의 상대어로서 장군과 군인이 고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군사지휘체계를 말한다. 신라는 건국 이래 사병제 형태의 군사지휘체계를 운용하였는데,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는 '屬大官'이라 하여 장군 개인에게 소속된 군인을 배치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병제의 운용은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서 신라는 이로써 삼국통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병제 하에서 군인들은 국왕보다도 자신의 지휘관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반란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중대 말 혜공왕 때부터 일어난 각종 반란은 사병제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형태이다. 이후 하대에 들어오면서 진골 귀족들은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사병을 양성하고, 이들 사병과 사병제 하에서의 휘하군인들을 동원하여 왕위쟁탈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공적인 군제는 붕괴되어갔다.

신라 군제 붕괴의 또 다른 원인으로 崇文抑武 정책을 들 수 있다. 신라 군대의 핵심은 무관이었다. 『삼국사기』, 직관지, 무관조에는 총 2,368명의 중앙무관이 수록되었는데 이들이야말로 삼국통일의 원동력이요, 중앙집권체

제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그러나 신라는 삼국통일 이후 승문역무 정책을 실시하였다. 태종 무열왕 때 무장사와 관련된 전설이나, 문무왕 때 '무기를 녹여 농기를 만들라'는 유언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원성왕 4년(788)에 실시한 독서삼품과는 중앙관을 무관 중심에서 문관 중심으로 교체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또 지방관 역시 국학의 졸업생만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승문역무 정책은 유교이념의 확산과 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집권층의 의도가 개재된 것이지만 군사력을 급속히 약화시키는 폐단도 낳았다. 민애왕 때에는 10만의 중앙군이 청해진 군대에 패배하여 국왕이 피살되었고, 진성여왕 때 중앙에서 파견된 나마 영기는 두려워 떨며 반란군을 진압하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이 문약해진 중앙의 무관들은 더 이상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무력적 기반이 아니었다.

6정·9서당 중심의 전시체제가 무너지고, 중앙 무관의 군사력도 점차 쇠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위 태세는 지방 요충지에 鎭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무열왕 때 北鎭이 설치되기는 했지만, 진의 설치가 일반화된 것은 신라 하대이다. 하대에 들어와 패강진 설치를 시작으로 청해진, 당성진, 혈구진, 장구진 등 여러 진이 설치된 것이다. 이 진들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독을 받는 군사 기지로서 변방 방어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都督 등 지방관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진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을 때 진의 군사력은 도리어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신라 말 중앙군과 지방군 조직이 붕괴되고 지방 통제력이 마비되면서 도처에서 도적들이 횡행할 때, 견훤과 궁예는 진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운 것이다. 즉 후삼국의 성립은 신라 정부가 군사력의 통제에 실패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원고투고일 : 2011. 6. 20, 심사수정일 : 2011. 8. 5, 게재확정일 : 2011. 8. 16)

주제어 : 6부병제, 2부병제, 대당과 정제, 6정·9서당, 3군, 중앙군, 지방군, 진

<ABSTRACT>

A Study on the Military System of the Late Period of Silla

Kim, Jong-soo

There had been, for its millenium, five turning points in the military system of Silla: from Six Regiments(六部兵) to Two Regiments(二部兵), from two to Daedang(大幢) and Jeong System(停制), from Daedang and Jeong System to Six Jeong/Nine Seodang(6停·9誓幢), and lastly to Three Divisions(三軍). The system in the late period of the dynasty began to collapse after it had culminated in Six Jeong/Nine Seodang.

The genuine causes of the collapse lie first in the enlistment system. The enlistment system here means the 'fixed' military hierarchy which the Silla Dynasty had adopted since its foundation. It enabled Silla to pursuit fo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nations. However there lurked the serious problem in it. That is, under the enlistment system, soldiers were likely to be more devoted to their superior commanders rather than to their monarchs. Thus they were sometimes involved in mutiny in the name of their superior commanders. The extreme case of it was the various revolts which broke out in the age of Hyegong(惠恭) King, at the end of Jungdae. After that, Jingol(眞骨) aristocrats engaged in the fights for the crown training the private army which had been prohibited at that time. The above features eventually led to the collapse of the public military system.

Second, there was a national policy of 'priority of civil service to military service' after the unification. Even though the gist of the Silla military system is its military officers, the dynasty enforced the priority. The will of Munmu(文武) King's, *melt the weapons to make the farming tools*, evinced the ethos of the time. Another evidence of the policy was *Dokseosampum*

(讀書三品科) in the fourth year of King Wonseong(元聖)(788). It accelerated the predominance of civil service over military service. Also regional servicemen were exclusively selected from the graduates of Gukhak(國學). The policy was meant, by the ruling class, to spread the Confucian ideas and to strengthen the royal authorities, however, it resulted in the negative effect, the weakening of its military power.

The dynasty, experiencing the collapse of Six Jeong/Nine Seodang system and distrusting the power of central military service, lastly resorted to the building of military camp *Jin*(鎭) on each seminal points. At the end of the dynasty, it was common to build 'Jin': the examples are Paegangjin(溟江鎭), Cheonghaejin(淸海鎭), Danseongjin(唐城鎭), Hyeolgujin(穴口鎭) and Jankujin(長口鎭). These *jins* effectively checked the military power of local areas, not to mention that it protected the national barriers. However, the military power of *jins* came to be burdensome to the central government when it could not properly control them. At the end of the dynasty, the chaotic situations such as the collapse of the central and local military system, and the rampancy of thieves all around gave way to the founding of new nations, Hubaekje(後百濟) and Hugoguryeo(後高句麗), which were based upon the military power of *Jins*.

Key Words : Six Regiments(六部兵), Two Regiments(二部兵), Daedang(大幢) and Chong System(停制), Six Jeong/Nine Seodang(6停·9誓幢), Three Divisions(三軍), Central Army, Regional Army, Military Camp *Jin*(鎭)